



오늘의 날씨 | 맑은 | 기온 16℃/20℃

2017년 5월 25일 목요일 (음력 4월 25일)

기독일보

석간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722-8165

제 813호



“함께 변화의 길로 들어가자”

기성 제111차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신임총회장 신상범 목사. 특별히 기자회견 시간, 그는 세습방지법이나 한국교회 연합사업, 동성애와 이단, 이슬람 대처 등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거침 없이 자신의 소견을 전달했다.

기성 신임총회장 신상범 목사 “동성애·이슬람 등 대처, 무한 협력할 것”

기성 제111차 정기총회 개최...

현 총무 김진호 목사 선거 통해 재선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형제 교단과 통합 위한 ‘기하성 총연합회’ 구성

제66차 정기총회 개최 현안 논의... 총회장에는 현 이영훈 총회장 연임

고 했다.

신 목사는 “(기성 교단이) 중간에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느 한 쪽에서 강하게 가겠다고 나서면 힘을 모으는 쪽에 더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면서 다시 한 번 “선불리 탈퇴 비발퇴를 논하지 않고, 하나 되는 곳에 힘을 모아주겠다”고 이야기 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습방지법’과 관련, 신 목사는 “구약에서는 제사장도 세습을 했고,

신약에서 목회자들은 제사장 중 하나”라며 “이것을 세상 잣대를 갖고 (재단하면 안 된다)”며 “세습이란 말은 세상에서 나온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저도 감히 밝히는데, 아들도 목사이지만 절대 교회 대를 잇게 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지만, “똑같은 형제조건에서 경쟁력과 능력이 있다면 (세습이라 해도) 청빙할 수 있다”며 “세습방지법 안전을 상정하는 것은 지방회에서 할 일이나,

만일 안이 올라오면 어느 한 쪽 치우침 없이 처리할 것”이라 이야기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의 동성애와 이단, 이슬람 문제 대처에 대해서 신 목사는 “당당하게 대처해야 할텐데, 현재 한기총이나 한교연 등이 하나 되기 어려워 참 안타깝다”면서

“이런 일로 연합하는 것은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덧붙여 “재정적인 것도 돕고, 이 3가지 문제는 교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일기에 무한 협력 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임원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총회장 신상범 목사 외에도 목사부총회장 서기, 회계 등에 각각 단독 입후보했던 윤성원 목사(삼성제일교회), 남창우 목사(역리교회), 김정식 장로(신마산교회)가 총회 대의원들의 인준을 받았다. 2명이 후보로 나섰던 장로부총회장 선거에서는 홍재오 장로(서울대신교회)가 사퇴 의사를 밝혀 이봉열 장로(정음교회)가 당선됐으며,

조영래 목사(한내교회)와 김영록 장로(청랑리교회)가 각각 부서기와 부회계에 당선됐다. 특별히 총무 선거에서는 현 총무인 김진호 목사(한우리교회)를 비롯해 성찬용 목사(청파교회),

홍승표 목사(대전신일교회), 문창국 목사(안산단원교회)가 출사표를 던졌으며, 3차례의 선거 접전 끝에 김진호 목사가 재선됐다.

박용국 기자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이하 기성) 제111년차 정기총회가 23일 서울신대에서 시작된 가운데, 24일에는 새로운 임원과 총무를 선출했다. 특별히 신임총회장은 신상범 목사(새빛교회)가 선출됐고, 관심을 모았던 총무 선거에서는 현 총무인 김진호 목사가 재선됐다.

신임총회장 신상범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제111년차 총회를 교단 변화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히고, “한 때 장·감·성으로 불리던 우리였지만, 교단의 위상과 우리의 모습은 자꾸만 추락하고 있다”며 “화려했던 옛 추억에 빠져 변화를 게을리 한 탓”이라 했다. 이어 “한 국교회도 마찬가지”라 지적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자 교권에 집착하다가 분열하고 분리되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면서 “변하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면 결국 도태될 것”이라 했다.

때문에 신 목사는 “성결교회가 자주 위축되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제111년차 총회대의원들에게 “함께 변화의 길로 들어가자”며 총회장으로서 추진할 5가지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먼저 신 목사는 “복음주의 웨슬리안, 사중복음의 성결교회 정체성을 확립 하겠다”고 말하고, “근자에 많이 희석된 사중복음의 기지와 더불어 성결교회의 정신과 교단의 부흥발전도 정제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사중복음의 영성과 정신을 함양해 교단의 정체성 강화와 질적 양적 성장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또 신 목사는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관심과 정책개발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현재) 신앙적 계기를 가져야 할 유초등부, 학생회, 그리고 청년회가 없는 교회들이 많고,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매년 많은 교역자가 배출되지만, 정작 교회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중요한 교육기관의 전문 사역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성결교회의 미래도 없다는 인식 하에 다시 한 번 교육기관의 부흥과 전문사역자를 양성하도록 교단과

신학교, 교회가 함께 머리를 싸매고 발전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신 목사는 “작은교회 그리고 농어촌교회에 관심을 갖고 격려하겠다”고 했다. 그는 농어촌 목회를 위해서 농목과목 개설을 서울신대에 요청하고, 농촌 정작 목회를 위한 포럼을 개최해 농어촌 목회에 힘을 더하겠다고 했다. 또 작은 교회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국선위의 부흥키워드, 교회진흥원, 개척교회 훈련원의 사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교단 내 작은 교회와 농어촌교회의 피해한 현실을 봤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생활이 어렵지만 묵묵히 사역하는 교역자들을 봤다”고 했다.

또 “교회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혹은 늦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해 교단 연금에 가입기회를 놓쳐 노후를 걱정할 수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교회관계자들을 보고 남의 일처럼 지나칠 수가 없었다”면서 본인을 위시한 모든 총회 부서의 회의 식비를 1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총회 각국실과 의회부서와 항존위원회의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그것을 공제회로 이관해 기회를 상실한 이들에게 가입 기회비용으로 내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그는 “총회장 판공비도, 회의의 교통비도 모두 다 보태겠다”고 밝히고, “우리는 한 가족이니 목회할 때는 여건에 따라 크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적으나 많으나 우리 모두 나누며 함께 가자”고 했다. 덧붙여 “혹시 기업을 하는 장로들이 있다면 기업의 면세 기부금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네 번째로 신 목사는 교단 중장기 부흥발전 프로젝트를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1년 임기의 총회장 중심의 사업은 연속성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총회장은 교단을 대표해 대외적인 업무와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정책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교단 운영과 정책 입안과 추진은 6년을 재임하는 총무가

중장기적 정책과 플랜을 세우고 일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때문에 신 목사는 “매 3년마다 치러지는 총무 선거가 교단 적으로 엄청난 힘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 간 선제를 통해 좀 더 젊고 유능한 분을 모시고 총무 퇴임 이후에 남은 정년을 교단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보장해 역동성 있고 안정성 있는 총무 사역과 교단이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신 목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교회 구성원의 고령화는 어쩔 수 없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우리 교단 전체 대의원의 75%가 60세 이상”이라 전하고, “오랫동안 교단을 위해 헌신한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연륜과 지식으로 총회의 각 부분에서 활동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이대로 가면 교단의 각 부분에서 연속성이나 역동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다”며

“교단 내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배치해 교단의 각 부분에서 반짝이는 예지와 역동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네 번째로 신 목사는 “교단 화합과 헌법 질서 수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교단 법질서 확립을 위해 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법집행의 엄중성만큼이나 공정성을 강화 하겠다

▶법집행 실무자들이 총회와 지방회 재판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추구 하겠다

▶교단 갈등의 요소였던 항존위원 선정에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타당한 인사를 하겠다고 이야기 했다.특별히 기자회견에서 그는 한국교회 연합사업과 관련, “(한기총·한교연이) 앞에서는 연합을 이야기 하는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지 뒤로는 발을 빼는 모습”이라 지적하고,

“양측이 연합의지가 많지 않고 어떤 분들은 기득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연합을) 못하더라”며 “선불리 한교연에서 발을 뺀다거나 어디에 앞장서겠다는 것도 아닌, 우리 교단이 정말 중간에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찾겠다”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형제 교단과 통합 위한 ‘기하성 총연합회’ 구성

제66차 정기총회 개최 현안 논의... 총회장에는 현 이영훈 총회장 연임

이 사라지게 되면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점진적인 방법을 결의했다.

총회에서는 총회장에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연임하고, ▶목사부총회장 이태근 목사(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 김명현 목사(이천순복음교회) ▶장로부총회장 이영수 장로(여의도순복음교회) ▶서기 강인선 목사(순복음평화교회)▶재무 박형준 목사(순복음평택중앙교회)가 선임됐다.

또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임명직 부총회장에 강영선 목사(일산순복음영산교회) 신덕수 목사(한일순복음교회) 최명우 목사(순복음강남교회) 김봉준 목사(아름길사랑교회) 등을 임명하고 총회는 이를 인준했다. 이들은 선교와 교육 등 각 영역의 사역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교역자연금공제회 전임 이사장 등의 횡령으로 말미암아 거액 손실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 현재 총 사고금액 83억원 가운데 37억원이 회수됐고, 이자 20억원을 감안하면 모두 6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이 총회장은 연금재단 손실액 회수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관련기사2면

조은식 기자

대만,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 이뤄져

아시아에서 최초로 대만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선언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대만 헌법재판소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를 위해

한다며 헌법 제22조 혼인자유규정, 헌법 제7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더불어 현재는 동성결혼 허용이 사회 안정성 및 인간 존엄성에 기여할 것이라 했다. 모두 14명의 재판관 가운데 2명 만이 이를 반대했다.

이번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은 대만의 동성애 인권운동가인 치자웨이(鄭家威) 등이 ‘이성 만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민법 제972조에 대한 위헌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의회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조항을 2년 내 개정해야 한다. 기한 내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이번 결정은 구속력이 있어 결혼을 원하는 동성애자들은 호적사무소에서 결혼 등기를 자동적으로 수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대만은 매년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등 소위 자신들을 성소수자(LGBT)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퀴어 퍼레이드가 열릴 정도로 동성애에 대해 관대했던 지역이다. 특히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해 집권한 후 분위기가 상당히 바뀐 것으로 이번 현재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

장소피아 기자

갈등·분쟁 극복하는 ‘평화 목회’ 했던 애산 김진호 목사를 기리며

감신대, 개교130주년·웨슬리회심279주년
기념 제30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감리교신학대학교(이하 감신대)가 개교 130주년과 웨슬리회심 27주년을 기념하며 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애산 김진호’(1873~1960) 목사의 목회와 민족운동에 대해 조명했다. 23일 오후 감신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덕주 교수(감신대)와 한규무 교수(광주대)는 각각 애산의 교육·목회와 민족운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애산 김진호 목사는 대한제국 말기의 한학자로서 일제 강점기 초기에 기독교에 입문한 인물이다. 상동교회 전담기 목사와 신민회 활동을 하고, 정동교회 전도사로 있으며 배재 학생들과 3.1운동 후 내리교회를 담임했으며, 배재기독교학생들과 이태원, 홍제원 교회를 부흥시켰다. 퇴직 후 공정교회 및 삼정교회를 담임하다 파송 받아 북한 청진에서 목회하며 6개 교회를 개척했고, 각종 중요 기록을 남겨



애산 김진호 목사
애산기념사업회

초기 한국기독교의 역사를 증거했다. 이덕주 교수는 먼저 애산의 목회에 대해 “크게 학원 목회와 교회 목회 두 영역에서 이뤄졌다”고 말하고, 특히 “배재에서 정년 은퇴한 후 교회 목회에 본격적으로 임했는데, 일제말기 종교 탄압이라는 외부 요인과 교회 내부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 화해와 일치를 추구했다”며 애산의 목회를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는 평화 목회’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애산의 목회는 기독교 신앙과 민족운동의 조화를 추구했다고도 했다.

특히 이 교수는 “애산의 목회에서 교육과 목회, 이론과 실천, 종교와 문화, 학문과 신앙, 진보와 보수, 전통과 개혁이라는 두 축은 갈등과 충돌의 상극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조화와 공존의 상생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하고, 한 예로 “목회자로서 기독교를 통한 개화와 근대화를 받아들였지만, 한국 전통 철학과 문화 유산을 폐기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그의 학문적 종교적 입장은 한 마디로 본질과 진리에서 지킬 것은 지키되, 지엽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은 과감히 척결하는 ‘개혁적 보수주의’라 할 수 있다”고 평했다. 한규무 교수는 올해가 애산이 전



초기 서울 YMCA 지도자들의 모습. 앞줄 둘째부터 이대위, 윤치호, 브룩크만, 이상재, 예비슨, 이인영, 홍병덕 등이 있고, 가운데 줄에 바른하트, 신홍우, 뒷줄에 구자옥, 목정수 등이 보인다. 뒷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애산 김진호 목사이다.

덕자에게 세례를 받은 지 110주년이 되는 해라 밝히고, “애산의 수세(受洗)와 신민회 입회는 신앙생활과 민족운동에 대한 그의 각오를 새롭게 다져주는 계기가 되었음이 분명하며, 이는 하나님과 민족을 향한 또다른 의미의 회심이기도 하다”고 평했다. 다만 한 교수는 애산과 신민회상동청년학원과의 관계와 애산의 3.1운동의 의미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이것들과 관련 앞으로 애산이 어떤 방식으로 민족운동을 계속했으며 그것이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그것이 아마도 자신의 과제가 될 것 같다고 강연을 마무리 했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이덕주·한규무 교수의 발표 외에도 애산의 손자인 김주환 목사(애산교회)가 애산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세종 목사(예수원교회)가 “애산 김진호 목사의 한학에 관한 개괄적 이해”를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또 감신대는 이날 학술대회 외에도 감신대 백주년 기념관 로비에서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애산의 사진과 저서, 사료들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조은식 기자

기하성 서대문 측, 여의도순복음 측과 통합 결의

정동균 신임총회장에게 전권 위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 기하성) 서대문 측 총회가 제6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측 총회와의 통합을 결의했다. 신임총회장에는 정동균 목사가 선출됐으며, 정 목사와 함께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박광수 목사는 양 교단 통합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아 일하게 됐다.



기하성 서대문 측 신임총회장 정동균 목사
기하성 총회 제공

신임총회장 정동균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통합과 관련, “양 교단의 총회 이후 교단 임원들이 모여 통합을 전제로 하는 ‘기하성 연합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상황에 따라 통합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통합을 하자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굴욕적이거나 무시당하는 통합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신임 임원들은 모두 단독 후보로 출마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신임총회장

정동균 목사(서울남부교회)를 비롯해 ▶제1부총회장 박지호 목사(인정순복음교회) ▶제2부총회장 송수용 장로(순복음경동교회) ▶서기 성한용 목사(더사랑청라교회) ▶재무 양병열 목사(순복음성남교회) ▶회계 박용권 목사 ▶총무 송시웅 목사(성도순복음교회) 등이 선출됐다.

한편 서대문 측은 총회를 통해 교단 개혁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특별히 권력의 장기 독점 및 금권선거, 선거 과열 등을 차단하기 위해 총회 임원 선거제도를 정비하기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총회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3인을 뽑은 후, 제비뽑기로 1인이 결정된다. 이 안은 2년 후인 오는 제68차 총회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목회자 윤리 문제와 관련, 총회 임원 임후보시 200만원 이상의 금고형이나 6개월 이상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사람은 임후보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단은 매월 마지막 하요일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교단미래발전위원회 등을 구성해 도시·농어촌 교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교권 다름 없는 교단정치 연구, 신학교 정상화 등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국 기자

기하성 총회 신수동 측, 신임총회장에 김서호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 기하성) 신수동 측의 제66회 정기총회가 충북 제천 순복음신학교에서 22~23일 열린 가운데, 신임총회장으로 김서호 목사가 선출

됐다.

다불어 총회 신임 임원 명단으로는 ▶제1부총회장 유영희 목사 ▶제2부총회장 김철수 목사

▶장로부총회장 김이진 장로 ▶서기 우시홍 목사 ▶회계 허중범 목사 ▶재무 이기봉 목사 등이 선출됐다.

신임총회장 김서호 목사는 4개로 갈라진 기하성 교단의 정통성과 역사성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교단 위상 강화와 교회연합사업 등에 힘을 쏟을 것임을 다짐했다.

그는 화합과 협력, 원칙과 절차에 맞는 공정한 교단 운영을 이야기했다.

다불어 ‘학교법인 순총학원’ 문제에 대해서도 외압에 굴하지 않겠다며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기하성 신수동 측은 현재 순총학교법인빌딩을 총회 본부로 사용 중인데,

여의도순복음선교법인이 이 빌딩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던 바 있다.

한편 순복음 신수동 측은 지난해 11월 횡령과 문서위조죄 등의 혐의로 범정 구속된 박성배 목사가 소속된 교단이다. 현재 교단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과 NCKK(총무 김영주 목사) 등에 가입해 활동 중이다.

박용국 기자

My KIDS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2 모바일웹 mykids.wv.or.kr로 접속해보세요.

3인원 후원금 지원

- 월드비전 Family Card와 함께 아동 정보가 담긴 카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아동과 친지를 교류하여 선물을 보내거나 아동이 사는 지역을 방문하여 아동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 1회 아동연례발달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통한 변화

- 월 3인원의 후원금은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아동이 영양, 보건, 교육, 교육 및 이들에 혜택을 줍니다.
- 아동후원은 한 아이의 배고픔을 넘어 꿈을 키우고 한 아이의 희망이 됩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성명]

언론·정치·법조인과 군인권센터는 군기문란자·군형법위반자 ‘영웅 만들기’ 당장 멈추라!

지난달 17일 동성애 성관계를 맺고 이를 SNS에 올렸다 구속된 동성애자 A대위가 오늘 오전 10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군형법 92조 6항(주행) 위반죄로 처벌한 매우 적법한 판결임에도 대다수언론과 일부 정치인, 법조인들이 나서 한목소리로 그가 마치 희생자라도 되는 양 “다녀사냥”, “씻을 수 없는 낙인”, “반인권 군형법”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비판·비호하는 모습은 상식 있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이며, 일반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대한민국 윤리규범을 무시한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동성애자 임태훈 씨가 소장으로 있고 동성애비호에 앞장서온 군인권센터는 “이런 판결의 근거가 되는 주행죄는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존재하는 이상한 법률이다. A대위의 범죄 행위는 업무상 관계없는 상대와 사적 공간에서 모두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며 상대방은 모두 타 부대 소속으로 상관·부하의 지휘관계에 놓여있지 않았다. 상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범죄의 낙인을 찍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군인의 신분과 특성, 규율을 망각하고 전면 부정한 발언이다. 군복부 중언군인이 일반인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궤변에 불과하며, 그런 군인들로 채워진 군대가 어떻게 국가를 수호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껏 군인권 보호 명분으로 쌓은 명성을 동성애옹호·비호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은 차제에 거짓 군인권으로 국민들을 호도치 말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또한 A대위의 변호를 맡은 김인숙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선고 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상대방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했고 우스꽝스런 판결이다.”라고 했고,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선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개선교 장로에도 한국기독교인연합회 회



주요섭 목사(반동성애 기독교연대 대표·헤세드 결혼문화선교회 대표)

장으로 장 총장의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에 수사가 좌우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엉뚱하게 종교문제로 비화시키려는 ‘단암 코스프레식’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어떤 군지휘관이 군형법에 얽혀서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군부대를 통솔한다 말인가. 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에서 벗어나 국정을 운영할 수 없듯, 군지휘관은 군법에 어긋나게 군부대를 통솔할 수 없는 건 자명한 이치다.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범죄준을 갖다 붙이는 건 군사재판의 본질과 성격을 아예 무시하려는 불손한 저의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아울러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도 “육군보통군사법원은 A대위가 건전한 생활과 군기확립을 저해했다고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권침해와 폭력이 만연한 군대, 존엄을 훼손하는 군대에서 건전한 생활과 기강을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했지만, A대위는 여전히 무죄다. 성소수자의 존엄과 한국 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훼손한 군사법원의 판결은 국제적인 망신거리일 뿐이다. 새 정부는 혐오의 정치로 군림하던 적폐세력이 물러난 지금, 구시대적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며 위험한 발언이다. 어떻게 남북대치 중인 대한민국군대에서 엄정한 군기강을 수립하는 걸 파렴치하다 말할 수 있으며, 뻔뻔하게 동성애를 한국사회의 보편적 인권이라고 주장하며, 동성애 반대자를 적폐세력이라는 등 구시대적 오류라는 등 망발을 일삼는 단 말인가. 그런 건강부회식 해석으로 국제망신 운운하는 그들이 오히려 사대주의적 근성과 사과의 편향성을 드러낼 뿐이며, 안하무인격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반동연에선 이미 지난달 15일 성명을 통해 남북휴전대치상태로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해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할 경우 자녀징집거부운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했으며, 동성애옹호에 앞장서는 군인권센터를 비호하는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한 바 있다. 군동성애는 사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공적영역의 문제며, 군전투

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문제며, 국민 불안을 증폭시켜 심각한 안보 위기와 군전투력 저하를 촉발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안이다.

더욱이 남북대치상황에서 국토방위 수호에 충실한 군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어긴 현역 군인을 구속하고 적법하게 판결한 걸 마치 불법조치인 양 호도하며 왜곡하는 언론들의 편향된 논조도 매우 유감스럽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균형 있게 심층 분석하는 기사는 없고, 군인권센터나 동성애옹호단체들의 주장을 맹목처럼 되풀이하는 언론보도가 넘친다. 이런 무책임한 언론은 정론직필(正論直筆)가 팽배해가는 중이며, 동성애는 인권문제 이전에 윤리도덕의 문제이며, 자연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일이며, 인류를 불행의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잊어서 안 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윤리도덕규범을 내팽개치고 무조건 외국의 사례를 답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사대주의 주장에 불과하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 동성애의 방치는 군인들 간의 끈끈한 전우관계를 무너뜨리는 암적 요소다. 전투력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군인끼리 성행위를 통한 사적관계를 맺도록 방치하거나 갈등관계로 돌아가는 건 대한민국군대의 전투력을 급속히 저하시키는 위험요소다. 군복무중인 대다수 군인은 오늘날 많은 유혹을 절제하며 군생활에 전념하고 있다. 그런데 동성애군인은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며 군형법마저 짓밟고 마치 특권층인 양 행세하려 든다. 그리하여 군대를 동성애자가 넘치는 군대로 만들어 무슨 유익을 얻는단 말인가. 군대를 결코 동성애군인 놀이터로 변질시켜선 안 되며, 위력(威力)에 의한 동성 간 성추행과 성폭행의 위험성에 노출시켜서도 안 된다.

이러한 시류를 틈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오늘 군형법 제92조6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자칫 국가안보에 균열을 일으

켜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만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군대 내 성추행 및 성폭행으로 인해 자살사건 및 총기난사사건이 빈발했으며, 그 후유증으로 제대 후에까지 큰 고통을 겪는 이들이 언론에까지 보도됐었다. 그런데도 군형법 92조6을 삭제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처럼 강제성을 동반하는 성적 접촉을 강력히 처벌하는 조항들이 남아있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은 실소를 머금게 한다. 그렇다면 역으로 군형법 92조6이 존재함에도 성추행과 성폭행이 암암리에 벌어지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만일 그 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그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소영옹주의에 빠진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군대는 동성애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해서도 방치해서도 안 된다. 휴가를 나온 군인이라도 군법에 저촉돼선 안 되며, 군인의 사생활보호는 일반인과 구별되며, 사적 영역에서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군 사법체계를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비논리적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삭제될 경우, 군대 선임 및 장교로부터의 성추행·성폭행 위험성으로 징집기피심리확산은 물론, 징집거부운동까지 예견되기에 절대 존속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끝으로, 동성애옹호 군인권센터는 더 이상 군인권문제의 공정성을 상실한 기관임이 만천하에 공개돼 그 신뢰도에 금이 갔기에 이제 그만 군인권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들의 주장은 사회규범과 동떨어진 억지궤변이며, 대다수 국민들과 군인 및 군인가족을 불안케 만드는 불온한 이익단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가 발전식 주장만 기사화시키고 그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비판의견은 배제시키고 있는 언론 또한 국민을 세뇌화 대상으로 인식하는 파쇼적 언론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균형 감각과 정론직필에서 한참 벗어난 언론의 각성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언론과 정치인, 법조인, 시민단체는 더 이상 군기문란자요 군형법위반자인 동성애군인을 미화시켜 ‘영웅 만들기’를 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한동대, 대학 최초로 동성애·동성 결혼 반대 천명

기독교 정신으로 건립된 한동대학교가 24일 동성애 동성결혼 반대를 천명하는 공식적인 선언문을 작성해 발표했다. 대학 캠퍼스에 동성애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특히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마저 그 문화에 젖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실로 귀한 선언이 아닐 수 없다.



장승훈 한동대 총장

한동대는 선언문을 통해 ▶동성애 행위가 성경적 진리와 윤리관에 반한다 ▶문화 안의 대세보다 성경의 계시를 기준으로 삼음을 분명히 한다 ▶동성애 행위가 근본에서 인간 개인과 공동체에 해와 병을 가져옴을 믿는다 ▶동성애로부터 치유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참 인권보호임을 믿는다고 했다. 다음은 한동대의 선언문 전문이다.

[동성애와 동성애 결혼에 대한 한동대 학교의 신학적 입장]

0. 현시대에 동성애와 동성애 결혼 문제의 심각성

최근 현대 사회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강한 도전이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독교 교회들 안에서 일부 지도자와 평신도가 동성애 합법화를 지지하면서 그것이 기독교 윤리에서 정당하다고 가르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의 계시와 기준에 충실하려는 복음주의 교회들과 지도자들은 큰 우려와 함께 동성애의 합법화가 반 성경적이며 반 기독교적임을 선언하고 있다. 성경의 계시를 중시하는 한동대학교는 이러한 복음주의 교회들과 신앙관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선언한다.

1. 우리는 동성애 행위가 성경적 진리와 윤리관에 반한다고 믿는다

성경은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함으로써 성(性)의 기능이 남녀의

부부로서의 합일을 위해 준 것임을 분명히 한다(창 2:24). 그것이 성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창조질서임을 믿는다. 그래서 성경은 모호함 없이 동성애의 행위를 성에 대한 왜곡으로 단죄하며 금한다. 이러한 단죄와 금지는 구약에 명시되어 있으며(레 18:22; 20:13) 신약도 그 금지를 잇고 있다(롬 1:26-27; 고전 6:9-10). 구약의 어떤 규례는 신약에서 폐지되기도 하지만 동성애에 대한 금지의 법은 폐해지지 않았다.

2. 우리는 문화 안의 대세보다 성경의 계시를 기준으로 삼음을 분명히 한다

문화 안의 어떤 가치는 성경의 가치와 충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가치는 충돌할 수도 있다.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문화적 추세로서 비록 문화 안의 대세가 그것을 지지해도 우리는 성경의 계시에 따라 그것이 창조질서에 어긋난 것임을 선언한다.

3. 우리는 동성애 행위가 근본에서 인간 개인과 공동체에 해와 병을 가져옴을 믿는다

우리는 성경이 죄로 단죄하고 금하는 것은 단순히 무의미한 단죄와 금지가 아니고 그것이 인간의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이며 사회적인 건강과 직결된 것이기에 단죄하고 금한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라는 하나님의 명에 역행한다고 믿으며 그러한 역행은 장기적 관점에서 하나님에 주신 성경적 가정제도와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구조에 해와 병을 가져옴을 믿는다.

4. 우리는 동성애로부터 치유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참 인권보호임을 믿는다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권을 가진 사람들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존중하나 동성애로부터 치유받도록 인도해주는 것이 참된 인권의 회복임을 믿는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편집장 장세규	교계편집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daily.co.kr 가사제보 press@cd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미주 기독교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이영진 칼럼] 기독교 좌파는 어떻게 한국교회를 집어삼킬 수 있었나

세습교회 때문
에? 목사들의 섹스
스캔들? 돈 스캔
들? 이것들이 문제
는 문제였지만 문
제의 본질은 아니
다.



호서대 이영진 교수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해
잠시 AD 1세기 유
대교의 전환기 과
정을 둘러드랴가
한다. 한국교회가 기
독교 좌파에게 잠식당하는 과정과 대단히
유사한 면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이미 BC 1-2세기 경의 유대교는 과거
의 상류계급과는 별개로 새로운 상류계
급이 급부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름 아
닌, ‘율법학자들’이었다.

당시의 귀족은 모두 다 세습귀족을 말
한다. 이들 세습귀족은 톨로 나뉘었다.
‘세속적인 세습귀족’과 우리가 이제 관심
가지고 지켜볼 ‘종교적 세습귀족’이다. 신
흥 상류계급 곧, 율법학자들이 바로 이들
과 종교 권력 다름을 벌여 승리를 거두
었기 때문이다.

이들 간에 벌어진 권력 쟁탈전은 시간
이 흐를수록 신흥 상류계급에게로 승기
가 넘어갔다. 대체 어떻게 했기에 그리 될
수 있었을까? 이들 신흥 상류계급은 대체
어떤 자들이었기에 그토록 오랜 역사를
장악하던 세습귀족과 감히 투쟁을 전개

할 수 있었고, 어떻게 했기에 그들을 집
어삼킬 수 있었을까? 이들의 막강한 힘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과거의 율법 해석의 권위는 대부분 고
급사제 계급에게 있었다. 세습사제 계층
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위는 단지
세습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
한 해박한 지식과 해석능력에 기인하는데
이러한 고급사제들이 AD 1세기 초까지만
해도 건재하였다고 한다.

이들테면, 탈무드에 나오는 성전 경비대
장 랍비 하나니아라든지 그 외 랍비 문
헌 에 나오는 어떤 대제사장의 손자인 이
스마엘 같은 사람은 당시의 유력한 세습
귀족 가문 출신의 율법 권위자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도 바로 이
런 귀족 출신의 문서 권위자이자 문필가
였다.

그러나 율법학자들 가운데는 귀족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류계급 사제로
부터 다양한 계층이 있었다. 가령 헬라식
전통의 회당에 봉직하는 세습 가문의 자
식들이라든지, 성전의 수문장 아들, 성전
에서 노래하는 가수의 아들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봤을 땐
보다 다양한 직업군 계층이 율법학자라
는 타이틀로 결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성전이나 회당에서 직
간접의 예전에 종사하는 사람들 외에도
포도주장수, 기름장수, 목수, 천막제조자,
못대장장이...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

어 있었다.

그런데 이들 후자의 경우는 세습귀족
들에 비하면 사회적으로 전한 출신에 속
했으며 상대적으로 가난했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종교 권력의 승기가
넘어왔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 오직 지식
만이 이들 율법학자들의 힘이었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들이 이와 같은 승기를 거
머쥐게 되는 데는 사회적으로 이런 역학
구조가 있었다.

당시 제국의 힘 아래서 살아가야 했던
일반 시민들은 형사와 민사에 관한 법률
에 있어서 어지간한 민사재판의 경우는
회당과 같은 지역 공동체에 의존했다. 회
당은 중대한 민사법정뿐 아니라 경미한
형사 건에 대한 처리까지도 관할했던 흔
적이 여러 사료에서 발견된다.

바로 이때, 어떤 공동체가 그 민사재
판의 진행을 위해 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 대두되
기 마련이다(정식 재판정은 아니기 때문
에). 즉, 이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결
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법률에 대한
지식과 그에 관한 해석의 능력이었다는데,
그에 관한 뛰어난 실력이 바로 이들 신흥
율법학자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상대적으로 사제 가문의 세습귀족들에
게서는 이 지식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
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는 옛 세습귀족들
이 차지했던 많은 주요 자리들이 AD 1기
에 이르러서는 거의 대부분 이들 신흥 율

법학자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의미한
다. 신흥 상류계급은 이렇게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1세기 팔레스타인의 스
케치가 아니라, 단연코 우리나라 전통교
회가 기독교 좌파에게 넘어간 개요이기도
하며, 또한 이것은 굳이 종교와 세속의
구분 없이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
에서 목격되었던 일련의 율법사들 즉, 법
조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미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바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종교에 관련한, 저와
같은 AD 1세기의 정치적 해게모니 변화
가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
을 끼칠 수 있었던 궁극적 이유인 것은
아니다. 그럼 대체 뭐냐?

당시 율법학자들이 그와 같은 영향력
을 끼칠 수 있었던 궁극적 이유는, 그들
이 종교법 자체에 관해 능통해서 그런 요
인을 접거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이들이 ‘비의적’(秘義的) 전통에 능통하
여, 그 비의적 지식들을 탐색할 줄 아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에 있다. 비의적 지식
이란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 이와 같은 1
세기 팔레스타인 유대교의 변화와 이 시
대 한국교회의 변화는 지당한 역사적 흐
름으로 비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단연
코 그렇게 지당하게 보지 않는다. 왜냐하
면 여기서 자칫 새로운 율법학자로 대변
될지도 모를 기독교 좌파는 결코 ‘바울’
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리어 회심

이전의 바울 즉,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색출해 잡아가는, 살기가 등등한 바울에
지나지 않는 교회파괴적 행태를 구사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와 같은 우려를 같이 하는 한
국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권고한다. 이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시 탈환해올 것을, 그 일을 어
떻게 해 낼 수 있을까?

우선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 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전통교회의 잠식은 개
인의 섹스 스캔들이나 돈 스캔들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지식의 질적 저하에서 가
속화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시
권고하건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 될 것
을 권고한다. 그리고 특별히 비의적(秘義
的) 전통에 능한 자 되기를 당부드린다.
그것이 이 시대의 신흥 종교귀족 기독교
좌파들에게서 교회를 재 탈환해낼 강력
한 무기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비의
적 지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
이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
게 하리라” 바로, 이 알지 못하는 신(*ANΩΣΤΩ ΘΕΩ*)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오로지 이 능력만이 여러분을 이
시대 절체절명의 모든 적그리스도 생태
환경에 빠진 우리나라 전통교회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진정한 율법학자 바울

로 만들어 줄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덧붙여사... ‘비의적(秘義的) 지식’ 이라
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고대의 역사적 랍비들에게 ‘비
의적 전승’이라고 하면 카발라(?????????)
아류를 일컫는 말이지만, 실질적 랍비들
의 파워는 이 신비주의 자체에서 나오게
아니라 이 카발라 따위를 지지대로 삼아
토라를 해석해 내는 능력에 있었다.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권위를 획득
한 것이다.

오늘날 전통교회는 이러한 지적 수단과
능력이 부족한 까닭에 신천지 같은 이단
과 기독교 좌파에게 영혼을 빼앗기는 원
인이 되었다.

간증집이나 영성일기 같은 것에만 길
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를 테면 움베르트
에코나 패트리크 쥐스킨트로 대변되는 비
의적인 세계속에서 그 알지 못하는 신(*ANΩΣΤΩ ΘΕΩ*)을 발견해 낼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 이영진 교수는 호서대학교 평생교육
원 신학 전공 주임교수이다. 그는 다양한
인문학 지평 간의 융합 속에서 각 분야
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도, 매우 보수적
인 성서 태제들을 유지해 혼합주의에 배
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신학자로,
일반적인 융·복합이나 통섭과는 차별화된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자본적 교회’(대
장간) ‘철학과 신학의 몽타주’(홍성사) 등
의 저서를 갖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전교조의 재합법화는 신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
어서 전교조(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의
재합법화가 논란
이 되고 있다. 전교
조는 DJ 정부시절
인 1999년 합법화
이후, 지난 2010년
고용노동부가 ‘해
직자를 조합원으
로 인정하는 규약
의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하였
고, 오히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
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전
교조의 법외노조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2년 ‘고용노
동부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전교조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
리고 그 해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통보하였으나, 전교조는 다
시 ‘범외 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하
였다.

법원에서는 2014년 1월에 전교조에 패
소를(1심), 2016년 1월 2심에서도 패소결
정을 하였다. 그 사이 2015년 5월에는 헌
법재판소마저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해고자는 노조
가입할 수 없다는 요지)를 ‘합헌’으로 결
정하였다.

현재 이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

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촛불
개혁 10대 과제’를 내세워 교원노조 재합
법화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과잉 친절이
다.

지금까지의 전교조의 활동을 살펴보면,
‘지나친 정치 투쟁’으로 흘렸음을 볼 수
있다. 전교조는 지난 해 전국 대의원대회
를 통하여 결의하기를, 교원노조법 개정,
교원평가 및 성과급제 폐지, 대학평준화
등 교육제도 개혁의 ‘3대 사업’을 결의하
였다.

거기에는 세월호 진상규명, 한국사 교
과서 국정화 저지, 사드배치 저지, 공공부
문 민영화 저지에 적극적으로 투쟁한다

는 목표를 공개하므로, 이것이 교육을 위
한 교원 노조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한껏 정치력을 발휘하려는 세력인지 모를
정도이며, 자기 정체성이 모호한 집단으
로 국민들에게 비춰졌다.

오죽하면, 전교조 내부에서조차, ‘정치
투쟁일변도로 민주성과 대중성을 잃어버
렸다’는 자성과 함께, 새로운 노조를 만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게 되었을
까?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도 않
았는데, 정치권과 힘을 합하여, 재합법화
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강그리 무시하는 잘못된 처
사이다.

전교조가 합법화된 단체로, 국민들과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먼저 준법정신을 실천하고,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되찾기
를 바란다.

전교조가 아무리 편향된 정치권의 힘
을 믿고, 재합법화를 추진한다고 하여도,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학부모들이 존재하
는 한, 교육 현장에서 이념대립을 부추기
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
만 내려고 할 때에는 국민의 저항은 커져
갈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혼란하고
무질서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자기 영역
에서의 성실한 역할은 도외시하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여, 지나친 자기주장들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전교조의 재합법화는 힘으로 몰아붙이
려는 시도보다, 적절하고 적절한 자격과
교육자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전교조
의 재합법화는 신중히 기다리는 것이 맞
다고 본다. 지난 2014년 전교조의 법외
노조와 관련하여,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전교조가 ‘좋다’
는 것에는 19%가 답을 했고, ‘좋지 않다’
는 응답에는 48%가 동의한 것을 참조하
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전전정부까지의 ‘적폐’를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런 정부의
정책에 맞게, 전교조는 적폐 대상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

명사와 함께 읽는 철학동화-철학하는 마이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스콜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이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낡고 해져서 더 이상 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끝째, 낡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허겁고, 오래되고, 물품없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해요.
진정한 명품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한복 디자이너·보자기 마이스터 이효제

글김이열스웍스 | 그림 박하라 대글인톡 | 화실 이효제 | 36쪽 | 14,500원

전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문의 02-724-7858 **이마주**